

회 의 록

회의일시	2013. 04. 09. 12:00~
참석자명단	이철호 교수님, 문헌팔 박사님, 김용택 박사님, 박현진 교수님, 이숙종 박사님, 이꽃임 박사님, 김미경 간사님, 이민경, 정경진
내 용	<p>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에서 쌀의 가치체계는 잘 되어있는 반면, 콩에 대한 가치체계는 연구되어있지 않다. 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 식용콩은 꼭 자급했으면 좋겠으며, 우선 식용콩의 용도별로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. → 예를 들어 콩나물, 두부, 두유 등 </p> <p> * 우리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주곡작물 6가지 : 쌀, 된장, 김치 등 그러나 실제 농업에서는 고추와 마늘 빼고 천대받고 있다(원예작물에서 배추는 제일 천대받음). 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콩이 우리 식탁에서 영구히 존재하는 아이템이라면 그 용도별로 분석해야 한다. 예를 들어 콩나물이나 두부냐에 따라 소비량 등이 다르기 때문 → 즉, 콩의 용도별(두부, 콩나물, 된장, 두유) 개인소비량, 연간소비량, 총공급량 등을 분석해야 한다. 이에 따라 앞으로의 연구방향, 기술, 정책 등이 나올 것이다. </p> <p>-----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콩의 자급률 향상은 쌀과 다르다. 쌀은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지만 콩은 생산기술, 수확 및 저장기술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. 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내생산이 적어지는 이유는 생산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이다. 콩 재배를 위해 일단 단지화가 되어야하고, 성력화 되어야 한다. 실제, 과종은 되는데 수확기계가 없다.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는 기계가 공급되어야 콩의 대량생산도 가능하다. 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이를테면 경운기와 같이 우리나라 실상에 맞게 농기계를 자체개발 해야하지만, 현재는 우리 실상에 맞는 수확기계가 없다. → 즉, 기계화에 따라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콩의 자급률 향상이 가능함 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미국에서 콩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원가지에서 콩이 열리는 것으로 종자를 개발하였고, 단위면적이 넓고 개수도 많이 심어 수확량이 열배는 늘어났기 때문이다. 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결과적으로 콩 재배에 있어 성력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급률이 바뀐다. 물론 기본적으로 육종도 하면서 우리 규모에 맞는 성력화가 필요하다(특히 발작물의 경우 기계화 개발이 필요). 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콩 자급문제는 수형을 바꾸는 육종문제와 성력화 문제이다. </p> <p> ∴ 오늘 회의 내용을 기초로하여 문헌조사를 더 실시한 후 제3회 식량안보간담회를 식용콩의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개최하기로 함. </p>